

韓國의 土活字印刷術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echnique of Printing with Movable Soil-Types in Korea

朴文烈(Park, Moon-Year)**

◁ 목 차 ▷

1. 緒言	4.1 土活字印刷術의 創案者와 創案地
2. 土活字의 概念	4.2 土活字印刷術의 創案時期
3. 從來 土活字印刷術에 관한 記錄과 研究	4.3 土活字印刷術의 效用
3.1 土活字印刷術의 創案時期	4.4 土活字印刷術의 印本
3.2 土活字의 製作法	4.5 土活字의 內入
3.3 土活字印刷術의 印本	5. 「厚生錄」의 土活字 製作法
3.4 土活字의 傳來	6. 結 論
4. 「承政院日記」所載의 土活字印刷術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土活字印刷術에 관한 기존의 기록과 「承政院日記」의 土活字印刷術과 관련된 새로운 기록을 분석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土活字는 어떤 종류의 흙이든 흙으로 제작한 活字의 凡稱이다.
- (2) 韓國 土活字印刷術의 創案者는 權孚(1662-1739)이고 그 創案地는 鑄字洞이며, 創案時期는 英祖 5년(1729) 以前이다.
- (3) 傳存하는 「三略直解」, 「經史集說」, 「玉纂」, 「東溟先生集」 등의 土活字印本 이외에 「古今名喩」도 土活字印本이며, 전래되는 ‘忱’, ‘帚’, ‘禧’ 등의 토활자 이외에 ‘臼’과 ‘獵’ 등의 土活字도 전래되고 있다.
- (4) 土活字 製作法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辛仲厚의 「厚生錄」에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要語 : 土活字印刷術, 土活字, 陶活字, 權孚, 鑄字洞, 「古今名喩」, 辛仲厚, 「(東國)厚生錄」

* 本 論文은 ‘2007學年度 淸州大學校 教授研究年制의 研究課題’로 研究되었음.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化情報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08년 5월 11일 최초심사일: 2008년 5월 16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23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records, previously known, and the records, newly discovered from *Seu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regarding the technology of printing with movable soil-typ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Movable soil-types are the generic name for all kinds of types made from any soil.
- (2) In Korea, the technology of printing with movable soil-types was invented by Gwon Bu(權孚) at JuJa-Dong(鑄字洞) before 1729, the 5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 (3)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amryak-Jikhae*(三略直解), *Gyeongsu-Jipseol*(經史集說), *Okchan*(玉纂), *Dongmyeong-Seonsaeng-Jip*(東溟先生集), *Gogeum-Myeongyu*(古今名喻) was also printed with movable soil-types. And, such characters as Wal(臼) and Eun(楛) as well as Chim(枕), Chu(帚) and Hui(禧) have existed as movable soil-types.
- (4) The technique of producing movable soil-types was documented in detail only in *Husaeng-Rok*(厚生錄) written by Sin-Junghu(辛仲厚).

Key words : Movable Soil-Types Printing, Soil-Type, Gwon-Bu,
Gogeum-Myeongyu, JuJa-Dong, Sin-Junghu, *Husaeng-Rok*

1. 緒言

韓國의 活字印刷術에는 과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있어서 金屬活字·木活字·土活字·匏活字 등의 활자들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韓國의 金屬活字印刷術은 고려시대 말기에 이미 실용되었으며, 木活字印刷術은 조선시대 초기에 이미 실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土活字印刷術과 匏活字印刷術은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실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本稿는 土活字印刷術과 관련된 從來의 記錄과 「承政院日記」에서 새로이 확인된 토활자인 쇠술과 관련된 기록¹⁾의 분석을 통하여 土活字印刷術의 새로운 定立에 기여하고자 한다.

2. 土活字의 概念

土活字는 어떤 종류의 흙이든 흙을 빚어서 제작한 활자를 凡稱하는 것이다.

土活字의 명칭은 膠泥活字·陶活字·오지活字·土鑄字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膠泥活字는 종래 중국에서 사용되어 왔던 토활자의 명칭이며, 陶活字·오지活字·土鑄字 등은 종래 한국에서 사용되어 왔던 토활자의 명칭²⁾이다.

(1) 膠泥活字

膠泥活字는 膠泥 또는 六一泥를 재료³⁾로 하여 구워서 제작한 활자이다. 교니 활자는 중국 송나라의 慶曆年間(1041-1048)에 畢昇(990-1051)에 의하여 발명된 것이다.⁴⁾ 膠泥에 문자를 새겨 불에 구워서 만든 활자이며, 활자의 嚙矢로

1)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7), 冊38. 215-216.

2) 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民音社, 1997), 502.

3) 赤石脂, 白礬, 滑石, 鹽 등의 礦物研成粉末을 사용하여 食醋(醋, 혹은 水, 혹은 蜜)로써 調製한 것이라 한다.<曹之, 「中國印刷術的起源」(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994), 461.>

알려지고 있다. 오늘날 교니는 (1) 점토 또는 찰흙이나 (2) 모르타르를 지칭하는 것이다.

(2) 陶活字

陶活字는 陶土를 재료로 하여 구워서 제작한 활자이다. 陶土는 질그릇 혹은 陶瓷器의 원료로 쓰이는 찰흙을 통칭하는 것이다. 陶土는 長石 따위가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흘러 내려진 것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붉은색의 진흙이다. 이 찰흙은 우리 몸에 뼈가 없으면 주저앉듯이, 뼈 같은 성분이 부족하여 1,200도가 넘으면 주저앉는다. 도토는 빛이 희고 차지며 도자기 제작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외에도 고급 타일의 제작이나 製紙에도 사용되고 있는 흙이다.

(3) 오지활자

오지활자는 오지그릇이나 질그릇 및 사기그릇 등을 만드는데 주재료로 쓰이는 燐土로 만든 활자이다.

(4) 土鑄字

土鑄字는 그 흙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흙으로 만든 활자이다.

4) 沈括, 『夢溪筆談』(臺灣: 商務印書館, 民國45(1956)) 卷18. '技術'條. 117.

版[板]印書籍 唐人尙未盛爲之 自馮瀛王始印五經 已後典籍皆爲版[板]本 慶曆中有布衣畢昇又爲活版[板] 其法 用膠泥刻字 薄如錢脣[唇] 每字爲一印 火燒令堅 先設一鐵版[板] 其上以松脂臘和紙灰之類冒之 欲印 則以一鐵範置鐵板上 乃密布字印 滿鐵範爲一板 持就火燒之 藥稍鎔 則以平板按其面 則字平如砥 若止印三·二本未爲簡易 若印數十百千本 則極爲神速 常作二鐵板 一板印刷 一板已自布字 此印者纔畢 則第二板已具 更互用之 瞬息可就 每一字皆有數印 如之·也等字 每字二十餘印 以備一板內有重複者 不用 則以紙貼之 韻爲一貼 木格貯之 有奇字素無備者 旋刻之 以草木燒 瞬息可成 不以木爲之者 文理有疏密 沾水則高下不平 兼與藥相粘 不可取 不若燐土 用訖 再火令藥鎔 以手拂之 其印自落 殊不沾污 昇死 其印爲予群從所得 至今寶藏

이상을 통해서 보면 膠泥活字·陶活字·오지活字·土鑄字 등의 재료는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한결같이 흙(土)을 主材料로 하여 만든 활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土活字는 어떤 종류의 흙이든 흙을 빚어서 제작한 활자의 凡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從來 土活字印刷術에 관한 記錄과 研究

종래 한국에서 토활자는 도활자·오지활자·토주자 등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들 활자를 사용하여 인출한 판본을 도활자본·오지활자본·토주자본 등⁵⁾으로 불려왔다. 이는 학자에 따라 용어의 사용이 다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래 한국에서 土活字印刷術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았다. 다만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土活字印刷術을 肯定하는 학자⁶⁾도 있었으며, 土活字印刷術을 否定하는 학자⁷⁾도 있었다. 또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 등으로 인하여 부정적이었던 견해에서 긍정적인 견해로 선회한 학자도 없지 않다. 學術의 定立을 위한 신중한 자세와 신축적인 견해의 표출은 바람직한 형태이며, 후학들의 연구방법에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1 土活字印刷術의 創案時期

한국에서의 土活字印刷術 사용에 관하여 先學의 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5)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7. 502.

6) ① 鮎貝房之進, “支那及朝鮮之古活字”. 書物同好會報 第10號. 京城: 書物同好會, 昭和16(1941). 附錄條.

② 前間恭作, 朝鮮の板本. 福岡: 松浦書店, 昭和12(1937). 164.

7)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348-351.

우리나라에서는 陶活字가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져 인쇄에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기록으로는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으니, 중국의 陶活字 실용화 시기와 비슷하다 하겠다.⁸⁾

이 언급은 土活字印刷術 發明의 創案者는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고, 創案의 時期는 폭넓게 잡아 18세기 초반일 것으로 推定하고 있는 언급이다.

3.2 土活字의 製作法

한국에서의 土活字의 製作法에 관하여 先學의 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오지그릇 만드는 찰흙을 아주 곱게 빻아 유자나무즙과 같은 기름을 섞어서 고루 잘 빻는다. 한편, 이에 앞서 쇠로된 둥근 주판알과 같은 구멍을 줄줄이 뚫고 그 뒷등의 흙이 나오는 곳을 쌍육의 주사위와 같이 만든 나무판을 사용하여 활자모양의 네모꼴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햇볕에 늘어놓고 반쯤 말린 다음, 「洪武正韻」의 글자체로 글자본을 쓴 얇은 중국 종이를 그 위에 뒤집어 붙이고 그대로 새긴다. 거기에 白蠟을 두텁게 칠한 뒤, 불에 구워 하나하나 만들어 낸다.⁹⁾

이는 편자¹⁰⁾가 밝혀지지 않은 「東國厚生錄」이란 寫本에 統制使 李載恒(1672- 1735)¹¹⁾이 海州 兵營에 있을 때 체험한 陶活字를 만든 방법이라면서

8) 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민음사, 1997), 502-503.
 9) ①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81), 348-351.
 ② 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민음사, 1997), 503.
 10) 東國厚生錄 혹은 厚生錄 으로 알려진 본서의 編著者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필자는 본서의 編著者가 辛仲厚(生沒年 未詳)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관하여는 추후에 別稿로 다루고자 한다.
 11) 李載恒: 숙종 4년(1678)에 출생하여 영조 7년(1731)에 死去한 조선시대 후기의 武臣이다. 본관은 全州이고 字는 君望이며 德興大院君의 6대손이다. 어려서부터 몸집이 크고 뼈대가 굵어 기골이 의연하였다.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어 覆試에 나아갔으나 이로움(利)이 없자 “아버지가 늙으시고 가세 또한 가난하니, 이로써 이름을 떨치기 어렵다”고 탄식하며 武藝를 닦아 숙종 32년(1706)에 武科에 급제하여 宣傳官에 제수되고 비변사낭관을 겸임하였다. 내외의 여러 벼슬을 거쳐 慶尙道水軍節度使가 되었다. 경종 4년(1724)에 노론인 李頤

소개¹²⁾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이는 李載恒이 景宗 3년(1723)에 慶尙左水使와 英祖 원년(1725)에 慶尙右兵使를 거쳐 統制使가 되고 英祖 5년(1729) 6월에 黃海兵使로 부임하여 英祖 6년(1730) 9월에 平安兵使로 부임하기까지 1년 3개월 동안 黃海道 海州 兵營에 있었는데 바로 그 무렵에 만들어진 것¹³⁾이라 여기고 있다.

3.3 土活字印刷術의 印本

한국에서의 土活字印刷術을 사용하여 印出한 印本에 관하여 先學의 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1) 「三略直解」 1冊 · 「經史集說」 7冊

이 土活字本은 아유가이(鮎貝房之進) 교수가 <支那及朝鮮之古活字>에서 고증한 것¹⁴⁾이다. 그가 「三略直解」 1冊과 「經史集說」 7冊을 土活字本으로 감정한 것은 「三略直解」의 권말의 刊記에 나타나는 “上之二年壬寅(景宗 2, 1722)三月 青海 文會軒 陶字契 新刊”에 의한 고증이였다. 이는 이들 土活字本이 景宗 2년(1722) 함경북도 북청에 있는 청해에 있었던 文會軒의 陶字契에서 陶活字를 만들어서 인출한 刊本이라는 것이다.

命의 일과라 하여 삭직되었다가, 영조가 즉위하자 다시 기용되어 三道水軍統制使에 이르렀고 風痺로 54세에 세상을 떠났다.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깊었으며, 남의 위급함이 있으면 급히 도와주었다. 평생에 재산을 모르고 항상 검소한 생활을 하니 모두가 國器라 칭송하였다. 일찍이 관서 權尙遊와 金鎮奎 등과 지우가 깊었다. 글씨를 잘 써서 당세에 이름을 떨쳤다. 작품으로는 <李載恒書帖>이 목판으로 印刊되어 전해지고 있다.

12)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81), 348-351.

13) ① 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民音社, 1997), 503.

②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汎友社, 1990), 368.

14) 鮎貝房之進, “支那及朝鮮之古活字,” 「書物同好會報」 第10號(昭和 16(1941)). 附錄條.

(2) 「玉纂」 19권

이 土活字本은 마에마(前間恭作) 교수가 「朝鮮の板本」에서 고증한 것¹⁵⁾이다.

(3) 「東溟先生集」 完帙

이 土活字本은 천혜봉 교수가 미국 컬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 東亞圖書館(East Asian Libraray) 華山文庫에 소장된 판본을 통하여 고증한 것¹⁶⁾으로, 이를 土活字本으로 고증한 근거는 卷末의 印出顛末 記錄에 의한 것이었다.¹⁷⁾

예전에 나의 先祖이신 東溟[金世濂]先生께서 讀書를 하신 곳은 東湖였다. 함께 선받던 이들은 모두 10분의 學士들이었는데 9公들의 文集은 세상에 유행되고 있으나, 오직 우리 先祖의 遺稿만이 아직 巾衍에 있을 뿐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王考¹⁸⁾의 兄弟들께서 일찍이 哀集하고 編次하여 劂刷¹⁹⁾에 부치려 하였으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先人²⁰⁾께서 先祖의 美德을 宣揚하지 못함을 걱정하며 기어이 遺志를 繼承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해 동안을 經營하여 오다가, 장차 家宅을 팔고 工匠을 모아서 [刊行의] 役事를 막 시작하려는 차에 갑자기 先人께서 世上을 떠나고 말아 生前의 先祖를 향한 지극한 精誠을 끝내 퍼지 못하셨던 것이다. 嗚呼 痛哉라! 생각건대 나의 慈母께서 항상 慟泣²¹⁾하시면서 不肖 [一基]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金氏三世에 남아있는 子孫이라고는 오직 너 한 사람뿐이니, 이제 이 責務는 너에게 달려 있는 만큼 네가 감히 先人의 遺意를 잊을 소냐! 立身揚名하여 前代의 休德을 顯揚하는 것도 실로 美事일 것이나, 이러한 有命이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歲月을 荏苒²²⁾하면 事故가 棼錯할 뿐이니, 家力의

15) 前間恭作, 「朝鮮の板本」(福岡: 松浦書店, 昭和 12(1937)). 164.

16) ① 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民音社, 1997), 504-505.

② 千惠鳳, “陶活字本「東溟先生集」의 發掘,” 「季刊書誌學報」 第15號(1995), 8-10.

17) 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民音社, 1997), 507.

18) 王考: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19) 劂刷: 목판으로 서적을 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 先人: 돌아가신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21) 慟泣: 대단히 슬피하여 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荏苒: 시간을 자꾸 끄는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貧薄²³⁾만 계산한다면 어찌 일이 遷就²⁴⁾될 수 있겠는가! 家宅을 팔아서라도 遺集을 刊行하는 것이 바로 네 先君의 遺志였으니, 田宅과 藏穫²⁵⁾을 어찌 아낄 것이겠는가!”고 말씀하셨다. 불초 [一基]는 눈물을 흘리며 命을 받아 湖西의 田庄을 斥賣²⁶⁾하여 이에 [刊行의] 役事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친척들은 이미 窮乏하고 비록 가까운 집안들이라 하더라도 매우 구차하여 안으로는 [刊行의] 役事に 동참하기를 外面하고 밖으로는 相助하지 않았던 것이다. 單身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나 넉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印行하여 널리 傳하지 못함이 마음 아플 뿐이도다. 희(噫)라! 이 遺集의 刊行은 곧 오로지 나의 慈母께서 차마 나의 先君의 遺意를 저버리지 못하고 數代에 걸쳐서 끝내 이룩하신 것이다. 미처 겨를을 내지 못하고 서둘러 거행한 일이라, 만약에 校讐가 未盡하거나 刊印에 精巧롭지 못함이 있다면 이는 곧 불초 [一基]의 愚陋에서 기인된 것이다. 觀者 諸位는 그 뜻을 어여뻐 여기시어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시소다! 丁巳(1737, 영조 13)年 五月 초하루(初吉)에 土[活]字로 印行의 役事를 시작하여 同年 7月 그믐날(晦日)에 印行의 役事를 마치면서, 不肖 曾孫 [金]一基는 삼가 印行 役事의 顛末을 쓰는 바이다.²⁷⁾

土活字本 「東溟先生集」의 간본은 현재 國立中央圖書館(일산古3648-文10-98),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811.97-김세렴-동), 誠庵文庫(4-608) 등에 完帙 혹은 落帙로 소장되고 있다.

23) 貧薄: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4) 遷就: 牽強附會하여 맞추기를 힘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5) 藏穫: 갈무리한 收穫을 의미하는 것이다.

26) 斥賣: 싼 값으로 마구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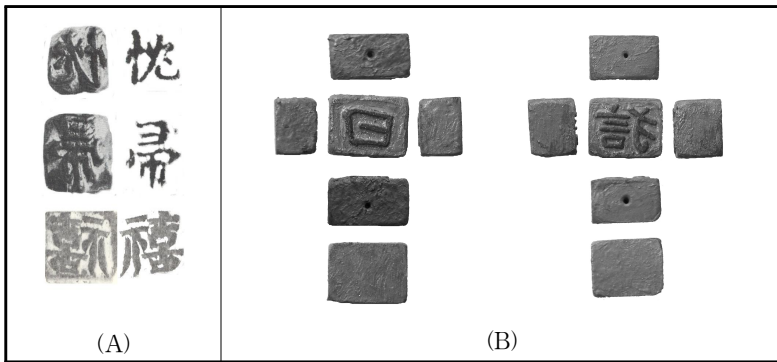
27) 金世濂, 東溟集. 影印本. 韓國文集叢刊 95.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2. 360.

昔我先祖東溟先生之讀書東湖也 同選凡十學士 而九公文集行于世 獨吾先祖遺稿尙在中衍 豈不慨然哉 王考兄弟嘗哀集編次 欲付剞劂 而未克成 先人懼先美之不揚 思遺志之克繼 經營累年 將賣宅鳩工 事幾就而遽爾違世 使平日爲先之至誠 終未得伸 嗚呼痛哉 惟我慈母恒慟泣而詔不肖曰 金氏三世 在子孫唯汝一人 此責在汝 汝敢忘先意哉 立身揚名 以顯前休 固是美事 此有命焉 不可必也 歲月荏苒 事故棼錯 豈可計家力之貧薄 而但事遷就乎 賣宅刊集 卽汝先君之志也 田宅藏穫 有何惜乎 不肖泣受命 斥賣湖庄[莊] 乃得始役 而親戚既乏 強[雖]近門戶又極零替 內蔑同事 外絕相助 單孑窮罷 力顧不瞻 未得多印而廣傳傷哉 噫 此集之刊 卽惟我慈母不忍墜棄我先君之遺意 克成數代 未違之舉者也 若乃校讐[讎]之未盡 刊印之欠精 此則不肖之愚陋也 觀者宜悲其志而恕其罪也 丁巳五月初吉以土字開印 同年七月晦日畢役 不肖曾孫一基 謹書印役顛末

3.4 土活字의 傳來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는 土活字로는 ‘忱’字와 ‘帚’字를 비롯하여 ‘禧’字 그리고 ‘曰’字 및 ‘信’字 등이 있다.

‘忱’와 ‘帚’ 등의 토활자는 倣洪武正韻字體로 故 金斗鍾(1896-1988) 교수가 입수하여 학계에 소개한 토활자들이다.²⁸⁾ 그리고 ‘禧’·‘曰’·‘信’ 등의 토활자는 倣「三韻聲彙」字體로 慶北 尙州地方에서 출현된 토활자들이다. 특히 尙州地方에서 출현된 토활자는 大字이며, 몸통의 중앙에는 세로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것은 조판할 때에 끈이나 철사 등으로 꿰어 排字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寫眞 1> 傳來 土活字²⁹⁾

28)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81), 348-351.

29) A: ①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81), 附圖近-130. 185.

②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汎友社, 1990),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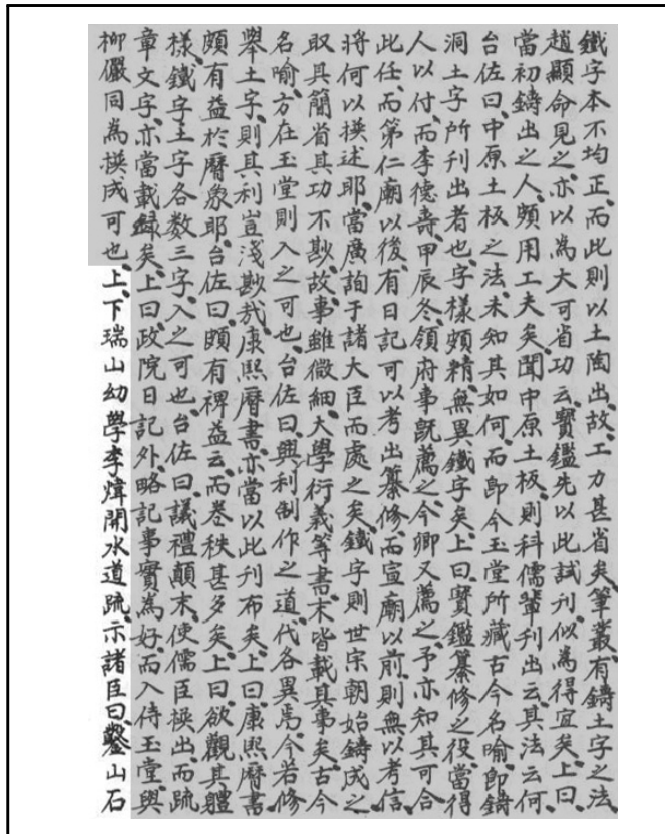
B: 慶北 尙州地域에서 제작된 土活字의 複製品으로, 이는 直指文化研究院의 李賢柱 副院長이 筆者의 연구를 위하여 實物을 複製하여 提供한 것이다. 귀중한 자료의 제공에 감사를 드린다.

4. 「承政院日記」所載의 土活字印刷術

土活字印刷術과 관련된 새로운 史書의 기록은 「承政院日記」에 나타나는 英祖 5年(擁正 7, 己酉, 1729) 8月 29(辛未)日의 기록³⁰⁾이다.



30)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7. 冊38. 215-216.



<寫眞 2> 「承政院日記」의 土活字 關聯 記錄

[李]台佐가 이르기를 “「寶鑑」의 [繼纂과 관련된] 事業을 만약에 尹淳에게 담당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마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또한 聽聞하건대 ‘列朝의 「寶鑑」도 이어서 纂輯하라!’시는 傳敎가 있었다고 하오는데, 이는 마땅히 文學에 관련된 名士를 揀選하여 分付해야할 일일 것이옵니다!”라고 아뢰니, 聖上께서는 “「寶鑑」이 文宗 이후로는 없으니,³¹⁾ 祖宗朝의 盛德이 간혹 闕失되어 傳해 지는 것이 없는 것이오다! 祖宗[朝]의 聖意를 본받고자 하려면 반드시 마땅히 계속하여 纂輯하여 補遺해야할 事案이니, 京外의 大臣과 儒臣들이 사는 곳에

31) 文宗 以後: 세조 2년(1457, 정축)에 완성된 太祖·太宗·世宗·文宗 등 「四朝寶鑑」을 지칭한다.

史官을 과견하여 問議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도다!”라고 하셨다. [李]台佐가 “中國의 朝廷에는 先王의 良法과 美制가 자랄한 것들까지도 모두 기록되어 있어 계속하여 撰述을 圖謀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朝廷에는 文獻으로 徵明할 수 없고 다만 「寶鑑」 3卷³²⁾만이 있을 뿐이라 人士들이 五衛의 法度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著作할 수 있겠사옵니까! 故 相臣 李端夏가 「宣廟寶鑑」을 撰進³³⁾하였으나 大事만을 載錄하였을 뿐이옵니다! 肅考의 40년 동안의 盛德과 鴻功을 尹淳으로 하여금 纂述하게 한다면 人士를 잘 選擇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大司成 李德壽도 비록 귀가 어둡기는 하나 [그의] 文章이 세상에서 드물게 뛰어나고 群書를 博觀함에 있어서도 百年 이래로 없을 人士이니, 이 인사가 아니고는 마땅히 이 任務를 맡을 人士가 없을 것이옵니다! 또한 자못 勤幹하여 당연히 쉽게 功效를 이룰 수 있을 것이옵니다! [「寶鑑」의] 纂輯이 完成된 후에 刊行해 내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을 일이옵니다! 지금 觀象監에서 「康熙曆書」를 간행하고자 하나 活字는 工役이 너무 浩大하여 감히 措手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鑄字洞에는 土[活]字가 있는데 곧 判決事 權孚가 創造한 것이라고 하옵니다! [權]孚의 말로는 ‘鐵[活]字로는 10일 동안 만들어야할 數量을 土板[土活字]로는 하루 동안이면 능히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만약 이것으로 開刊한다면 物力이 당연히 減省되는 것이 그 얼마나 많을 것이겠습니까!”라고 아뢰니, 성상께서는 “그 크기는 鐵[活]字와 [비교하여] 어떠한가!”고 하문하셨다. [李]台佐가 “鐵[活]字本은 均正하지 못하나 이 [土活字]는 土陶로써 만들어내므로 工力이 매우 減省되옵니다! 「筆叢」에 土[活]字를 주조하는 방법이 있어 趙顯命이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역시 ‘크게 工力을 減省할 수 있다’고 하옵니다! 「寶鑑」을 먼저 이 [土活字]로써 試刊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옵니다!”라고 아뢰니, 성상께서는 “당초에 주조해낸 人士가 자못 工夫를 하였겠구먼! 듣자하니 中原의 土[活字]板은 곧 科儒輩가 出刊하였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떠한다고 하던가!”라고 하문하시니 [李]台佐가 “中原의 土[活字]板法은 그것이 어떠한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 玉堂에 所藏된 「古今名諭」는 곧 鑄[字]洞의 土[活]字로 刊出된 것이옵니다! 字樣은 자못 精密하여 鐵[活]字와도 별다름이 없사옵니다!”라고 아뢰었다. 성상께서는 “「寶鑑」을 纂修하는 功役은 마땅한 人士를 選擇하여 分付해야겠는데, 李德壽는 甲辰年 겨울에 領府事로 이미 推薦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卿이 또한

32) 寶鑑 3卷: 世祖 2년(1457, 정축)에 완성된 太祖·太宗·世宗·文宗 등 四朝寶鑑 1책과 「宣廟寶鑑」 및 「肅廟寶鑑」 각 1책의 도합 3책을 지칭한다.

33) 宣廟寶鑑: 숙종 6년(1680, 경신)에 工曹判書 李端夏가 상소를 올려 “신의 아버가 歷史를 編修할 때에 직접 仁祖의 分부를 받아 實錄 가운데 訓戒를 뽑아 1책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였는데, 완성되기 전에 신의 아버가 갑자기 졸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寶鑑의 범례를 모방하여 실록에서 뽑아내어 王世孫께서 보시도록 대비하였는데, 필시 분만는 방도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에 廟堂에서 李端夏로 하여금 끝까지 그 일을 管掌할 것을 청하여, 숙종 10년(1684, 갑자)에 이단하가 글 10편을 만든 다음 筓子와 아울러 올린 것이 「宣廟寶鑑」이다.

推薦하니 나 역시 그가 이 任務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았도다! 그리고 次第에 仁廟 以後에는 日記가 있어 考出하여 纂修할 수 있으나 宣廟 以前에는 考信할 수가 없으니, 장차 어떻게 해야 撰述할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여러 大臣들에게 널리 詢問하여 處理해야할 것이도다! 鐵[活]字는 곧 世宗朝에 처음으로 鑄成되었는데 모든 簡省을 취하여 그 功力이 적지 않았던 것이도다! 그러므로 事勢가 비록 微細한 것이라도 「大學衍義」等 서적의 말미에 한결같이 그 사실이 載錄되어 있는 것이도다! 「古今名喻」가 바야흐로 玉堂에 있다가니 內入하도록 하라!”고 하시었다. [李]台佐가 “이로움을 振興하여 制作하는 방법은 대대로 각각 차이가 있으나, 지금 만약에 土[活]字로 修學하면 그 이로우미 어찌 淺尠하다고 하겠사옵니까! 「康熙曆書」도 당연히 이 [土活字]로써 刊布해야할 것이옵니다!”라고 아뢰니, 성상께서는 “「康熙曆書」는 자못 曆象에 有益한 것인가!”라고 하문하시었다. [李]台佐가 “자못 ‘裨益이 된다’고는 하나 그 卷帙이 매우 많사옵니다!”라고 아뢰니 성상께서는 “그 [土活字의] 體樣을 살펴보고 싶으니, 鐵[活]字와 土[活]字를 각각 數 3字씩 內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도다!”라고 하시었다.³⁴⁾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영조 5년(雍正 7, 己酉, 1729) 8월 29(辛未)일은 날씨가 맑았으며, 당일의 관리는 行都承旨 趙顯命(式暇), 左承旨 申(雨)

34)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7), 冊38. 215-216.

[李]台佐曰 寶鑑事 若使尹淳當之 則幾何而畢乎 且聞有列朝寶鑑繼纂之教云 此當揀選文學之士而付之矣 上曰 寶鑑 自文宗以後無之 祖宗朝盛德 或有闕而不傳者 欲法祖宗之意安在 必當有繼纂補遺之舉 京外大臣儒臣處 遣史官問議宜矣 [李]台佐曰 中朝則先王之良法美制 纖悉布護 故可以爲繼述之圖 而我朝則文獻無徵 只有寶鑑三卷 故人不知五衛之法 如何而作矣 故相臣李端夏 撰進宣廟寶鑑 而大事則書之矣 肅考四十年盛德鴻功 使尹淳纂述 則可謂得人 而大司成李德壽 耳雖重聽 文則希世 博觀群書 卽百年以來所無非此人 莫可當此任 且頗勤幹 當易訖功矣 纂成之後 刊出甚難 卽今觀象監 欲刊康熙曆書 而活字則工役浩大 故不敢措手 聞鑄字洞 有土字 卽判決事權孚所創造也 [權]孚之言曰 鐵字之十日爲之字 土板則一日能爲之云 若以此開刊 則物力當減幾許令乎 上曰 大小與鐵字何如耶 [李]台佐曰 鐵字本不均正 而此則以土陶出 故工力甚省矣 筆叢有鑄土字之法 趙顯命見之 亦以爲大可省功云 寶鑑先以此試刊 似爲得宜矣 上曰 當初鑄出之人 頗用工夫矣 聞中原土板 卽科儒輩出刊云 其法云何 [李]台佐曰 中原土板之法 不知其如何 而則今玉堂所藏古今名喻 卽鑄洞土字所刊出者也 字樣頗精 無異鐵字矣 上曰 寶鑑纂修之役 當得人以付 而李德壽 甲辰冬 領府事旣薦之 今卿又薦之 予亦知其可合此任 而第仁廟以後 有日記可以考出纂修 而宣廟以前 則無以考信 將何以撰述耶 當廣詢于諸大臣而處之矣 鐵字則世宗朝始鑄成之 取具簡省其功不尠 故事雖微細 大學衍義等書末 皆載其事矣 古今名喻 方在玉堂則入之可也 [李]台佐曰 興利制作之道 代各異焉 今若修學土字 則其利豈淺尠哉 康熙曆書 亦當以此刊布矣 上曰 康熙曆書 頗有益於曆象耶 [李]台佐曰 頗有裨益云 而卷帙甚多矣 上曰 欲觀其體樣 鐵字土字各數三字 入之可也.

+澤)(奉命偕來), 右承旨 張泰紹(坐直), 左副承旨 李瑜(未肅拜), 右副承旨 權始經(坐), 同副承旨 金始煥(坐直), 注書(二員未差), 假注書 柳逸(仕), 假注書 南泰齊(仕直), 事變假注書 朴琮(仕) 등이었다.³⁵⁾

4.1 土活字印刷術의 創案者와 創案地

土活字印刷術의 創案者와 創案地에 관하여 「承政院日記」에서는

… [寶鑑 의] 纂輯이 完成된 후에 刊行해 내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을 일이옵니다! 지금 觀象監에서 「康熙曆書」를 간행하고자 하나 活字는 工役이 너무 浩大하여 감히 措手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鑄字洞에는 土[活]字가 있는데 곧 判決事 權孚가 創造한 것이라고 하옵니다! …³⁶⁾

라고 기록하고 있다.

「承政院日記」의 기록에 의하면 土活字印刷術의 創案者는 權孚(1662-1739)이며, 그 創案地는 鑄字洞임을 알 수 있다.

土活字印刷術의 創案者인 權孚의 본관은 安東이고 字는 信之였다. 증조부는 權徹이고 조부는 權躋이며 외조부는 金南甲이었다. 父는 權胄이고 妻父는 申厚命이었다. 1662년(현종 3, 임인)에 출생하여 1693년(숙종 19) 式年試에서 서울 거주의 유학으로 생원 1등 5인으로 입격하고 通德郎을 지냈다. 52세인 숙종 39년(1713) 增廣文科에서 丙科 16위로 급제하여 北靑·襄陽·尙州·東萊府使를 거쳐 承旨에 이르렀다. 1739년(영조 15) 4월 4일에 78세로 卒去하였다.³⁷⁾

35)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7), 冊38. 215-216.

雍正 5年(己酉, 1729) 8月 29日(辛未)日, 晴, 行都承旨 趙顯命(式暇), 左承旨 申(雨+澤)(奉命偕來) 右承旨 張泰紹(坐直), 左副承旨 李瑜(未肅拜), 右副承旨 權始經(坐), 同副承旨 金始煥(坐直) 注書(二員未差) 假注書 柳逸(仕), 假注書 南泰齊(仕直), 事變假注書 朴琮(仕).

36)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7), 冊38. 215.

… [寶鑑]纂成之後 刊出甚難 卽今觀象監 欲刊康熙曆書 而活字則工役浩大 故不敢措手 聞鑄字洞 有土字 卽判決事權孚所創造也 …

37) 安東權氏大宗會 編, 「安東權氏大同世譜」(서울: 해돋이, 2004), 全32卷.

土活字印刷術의 創案地인 鑄字洞³⁸⁾은 오늘날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동으로 북쪽으로 충무로 2가, 동쪽으로 南學洞, 남쪽으로 藝場洞, 서쪽으로 남산동 3가와 접하고 있다. 1396년(태조 5)에 漢城府 南部 薰陶坊에 속하였으며, 1751년(영조 27)에는 薰陶坊 鑄字洞界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1894년(高宗 31) 甲午改革 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鑄字洞界의 主洞이 되었고, 1910년 10월 漢城府가 京畿道 京城府로 개칭되면서 京畿道 管轄地域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일본식 지명인 鑄町이 되었으며, 1943년 6월 區制 실시로 中區 鑄町이 되었다. 1946년 日帝 殘在清算의 일환으로 町을 洞으로 개편할 때 鑄字洞이 되었다.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筆洞 관할의 하에 있다. 지명은 鑄字所가 있었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鑄字洞 4-7번지 일대는 조선시대에 활자를 주조하던 鑄字所의 터이며, 5번지 부근에 鑄字橋, 6번지에 일본 영사관 등이 있었다.

4.2 土活字印刷術의 創案時期

土活字印刷術의 創案時期에 관하여 「承政院日記」에서는

… 보고된 바에 의하면 鑄字洞에는 土[活]字가 있는데 곧 判決事 權孚가 創造한 것이라고 하옵니다! [權]孚의 말로는 ‘鐵[活]字로는 10일 동안 만들어야 할 數量을 土板[土活字]로는 하루 동안이면 능히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만약 이것으로 開刊한다면 物力이 당연히 減省되는 것이 그 얼마나 많을 것이겠습니까!”라고 아뢰니 …³⁹⁾

라고 기록하고 있다.

「承政院日記」의 기록에 의하면 土活字印刷術의 創案時期는 擁正 7年(己酉, 1729, 영조 5) 이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承政院日記」의 이 기사가

38) 權愷(朝鮮) 編, 薰陶坊鑄字洞志. [鑄字洞]: [刊行者未詳], [光海君 13(1621) 跋].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古貴5409-3)

39)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7), 冊38. 215.
… 聞鑄字洞 有土字 卽判決事權孚所創造也 [權]孚之言曰 鐵字之十日爲之字 土板則一日能爲之云 若以此開刊 則物力當減幾許令乎 …

英祖 5年(擁正 7, 己酉, 1729) 8月 29(辛未)日字의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4.3 土活字印刷術의 效用

土活字印刷術의 創案時期에 관하여 「承政院日記」에서는

… [權]孚의 말로는 ‘鐵[活]字로는 10일 동안 만들어야할 數量을 土板[土活字]로는 하루 동안이면 능히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만약 이것으로 開刊한다면 物力이 당연히 減省되는 것이 그 얼마나 많을 것이겠습니까!”라고 아뢰니, 성상께서는 “ 그 크기는 鐵[活]字와 [비교하여] 어떠한가!”고 하문하셨다. [李]台佐가 “鐵[活]字本은 均正하지 못하나 이 [土活字]는 土陶로써 만들어내므로 工力이 매우 減省됩니다! 「筆叢」에 土[活]字를 주조하는 방법이 있어 趙顯命이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역시 ‘크게 工力을 減省할 수 있다’고 하옵시다!”라고 아뢰니 … 40)

라고 기록하고 있다.

「承政院日記」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土活字의 製作法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土活字 제작의 재료는 土陶(陶土)이며 「[少室山房]筆叢」에 土活字를 제작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

胡應麟의 「[少室山房]筆叢」에서의 土活字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급히 [서적을] 인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활자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宋朝부터 이미 징조가 나타났던 것이다. 「[夢溪]筆談」에 이르기를 “서적을 版印하는 것은 唐[代]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것이 성행되지 못한 것이었다. 馮瀛王(馮道)이 처음으로 五經을 印[出]하고부터 [그] 이후로 典籍은 모두 [木]版本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慶曆年間에 백성(布衣) 畢昇이 또한 活版

40)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7), 冊38. 215.
… [權]孚之 言曰 鐵字之十日爲之字 土板則一日能爲之云 若以此開刊 則物力當減幾許 令乎 上曰 大小與鐵字何如耶 [李]台佐曰 鐵字本不均正 而此則以土陶出 故工力甚省矣 筆叢有鑄土字之法 趙顯命見之 亦以爲大可省功云 …

을 만들었는데, 그 방법은 膠泥를 사용하여 글자를 새긴 것으로 그 얇기(薄)가 銅錢님과 같았으며, 한 글자마다 하나의 印[章]처럼 만들어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하였던 것이다. 먼저 하나의 鐵版을 설치하고 그 위에 송진(松脂), 밀랍(蠟), 종이재(紙灰) 등의 종류로 [鐵版 위를] 덮었던 것이다. 印出을 하고자 하면, 鐵版 위에 하나의 鐵範을 장치하고 나서 이에 곧 촘촘하게 活字를 [고르게] 배열하여 鐵範에 가득 채워 1版을 만들어 [만든] 그대로 그것을 곧 불에다 녹였는데, 油藥이 조금씩 녹으면 字[版]이 숫돌과 같이 평평해졌던 것이다. 만약 2·3本만을 印[出]하고 그치고자 할 경우에는 簡易하지 못하였으나, 수십·백·천本을 印[出]하고자 할 경우에는 곧 귀신같이 빠른 속도로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항상 2枚의 鐵版을 만들어 1版을 인쇄에 부치면 다른 1版에 이미 글자가 배열되도록 하였으며, 첫째 판으로 인출이 끝나자마자 곧 둘째 판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지도록 하면서, 다시금 그것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 순식간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 글자마다 한결같이 여러 벌의 活字를 갖추도록 하되, 예컨대 ‘之’·‘也’ 등과 같은 글자는 글자마다 20여벌의 活字를 갖추어 한 판 내에서 중복이 있을 경우에 대비토록 하였던 것이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活字에] 종이를 붙여 韻에 따라 한 묶음으로 만들어 木格에다 그것을 갈무리하게 하였던 것이다. 僻字가 있어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곧 바로 그 [글자]를 새겨서 草火로 구워내면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나무(木)로 그것을 만들지 않았던 것은 木理에 疏密이 있어 水(水)를 바르면 高下가 평평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 [油藥]을 바르면 서로 달라붙어 취할 수가 없었으므로 土(膠泥)로 구워서 만든 것만 같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사용하고 나서는 다시금 불에 [구워] 油藥이 녹게 하면,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기만 하여도 그 活字들이 저절로 떨어지고 특별히 沾汚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畢]昇이 死去하자 그의 油藥과 活字들은 나의 群從들의 所得이 되어 오늘날까지 保藏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夢溪筆談」에 소개된 것을 전제한 것이나, 오늘날 油藥과 膠泥가 없어지자 活字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것만을 活字라 칭하고 있다. 云云.⁴¹⁾

41) 胡應麟, 少室山房筆叢. 石印本. 上海: 掃葉山房, 民國12(1923). 卷4. 經籍會通4.
 今世 欲急於引行者 有活字 然自宋已兆端 [夢溪筆談云 板[版]印書籍 唐人尙未盛爲之 自馮瀛王始印五經 已後典籍皆爲板[版]本 慶厯[曆]中有布衣畢昇 又爲活板[版] 其法 用膠泥刻字 薄如錢唇[唇] 每字爲一印 火燒令堅 先設一鐵板[版] 其上以松脂臘和紙灰之類 冒之 欲印 則以一鐵範置鐵板上 乃密布字印 滿鐵範爲一板 待[持]就火燒之 藥稍鎔 則以平板案[按]其面 則字平如砥 若止印三二本 未爲簡易 若印數十百千本 則極爲神速 常作二鐵板 一板印刷 一板已自布字 此印者纔畢 則第二板已具 更互用之 瞬息可就 每一字皆有數印 如之也等字 每字(有)二十餘印 以備一板內有重複者 不用 則以紙貼之 每韻爲一貼 木格貯之 有奇字素無備者 旋刻之 以草火[木]燒 瞬息可成 不以木爲之者 木(文)理有疏密 沾水則高下不平 兼與藥相黏[粘] 不可取 不若播[燔]土 用訖 再火令藥鎔 以手拂之 其印自落 殊不沾汚 昇死 藥[其]印爲其[予]羣[群]從所得 至[今]寶藏[之] 右俱[夢溪]筆談所載 今無以藥泥 爲之者 惟用木稱活字云.

胡應麟의 「[少室山房]筆叢」에 나타나는 土活字를 제작하는 방법은 沈括의 「[夢溪]筆談」에 나타나는 畢昇의 膠泥活字製作法이 그대로 수록⁴²⁾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土活字印刷術의 印本

土活字印刷術의 印本에 관하여 「承政院日記」에서는

… [李]台佐가 “鐵[活]字本은 均正하지 못하나 이 [土活字]는 土陶로써 만들어내므로 工力이 매우 減省됩니다! 「筆叢」에 土[活]字를 주조하는 방법이 있어 趙顯命이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역시 ‘크게 工力을 減省할 수 있다’고 하옵니다! 「寶鑑」을 먼저 이 [土活字]로써 試刊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옵니다!” 라고 아뢰니 … [李]台佐가 “中原의 土[活字]板法은 그것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 玉堂에 所藏된 「古今名喻」는 곧 鑄[字]洞의 土[活]字로 刊出된 것이옵니다! 字樣은 자못 精密하여 鐵[活]字와도 별다름이 없사옵니다!” 라고 아뢰었다. 성상께서 “… 鐵[活]字는 곧 世宗朝에 처음으로 鑄成되었는데 모든 簡省을 취하여 그 功力이 적지 않았던 것이도다! 그러므로 事勢가 비록 微細한 것이라도 「大學衍義」等 서적의 말미에 한결같이 그 사실이 載錄되어 있는 것이도다! 「古今名喻」가 바야흐로 玉堂에 있다하니 內入하도록 하라!” 고 하시었다. [李]台佐가 “… 「康熙曆書」도 당연히 이 [土活字]로써 刊布해야 할 것이옵니다!” 라고 아뢰니 …⁴³⁾

라고 기록하고 있다.

承政院日記의 기록에 의하면 土活字印刷術의 印本으로는 寶鑑 · 「古今名喻」 · 「康熙曆書」 등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과연 「寶鑑」 · 「古今名喻」 · 「康熙曆書」 등이 土活字印刷術로 인출되었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42) 沈括, 「夢溪筆談」(臺灣: 商務印書館, 民國45(1956)), 卷18. ‘技術’條,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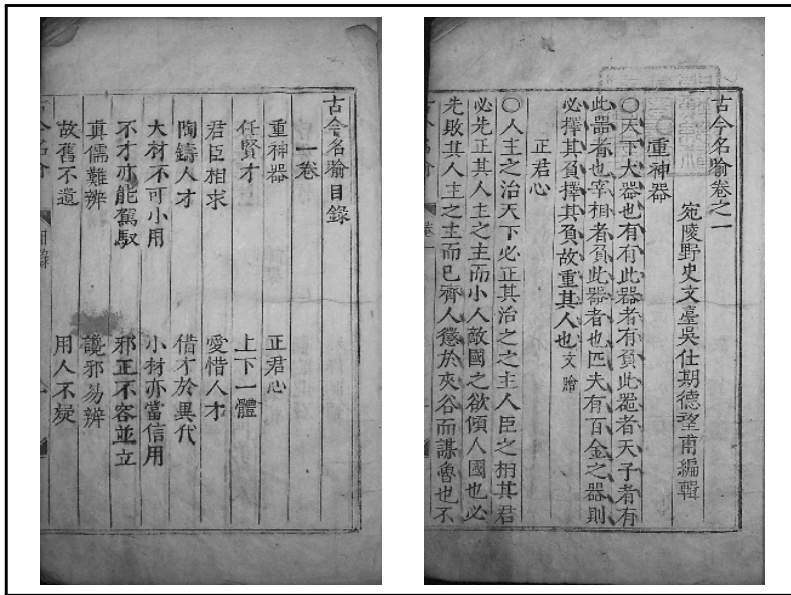
43)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7), 冊38. 215-216.

… [李]台佐曰 鐵字本不均正 而此則以土陶出 故工力甚省矣 筆叢有鑄土字之法 趙顯命見之 亦以爲大可省功云 寶鑑先以此試刊 似爲得宜矣 … [李]台佐曰 中原土板之法 不知其如何 而則今玉堂所藏古今名喻 卽鑄洞土字所刊出者也 字樣頗精 無異鐵字矣 上曰 … 鐵字則世宗朝始鑄成之 取具簡省其功不尠 故事雖微細 大學衍義等書末 皆載其事矣 古今名喻 方在玉堂則入之可也 [李]台佐曰 … 康熙曆書 亦當以此刊布矣 …

그러나 국내에 있어 國立中央圖書館·奎章閣·藏書閣·尊經閣 등에 소장된 「古今名喻」만은 土活字印刷術로 印行된 것이 틀림없는 듯하다.⁴⁴⁾



44) ① 朴文烈, “「古今名喻」의 版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會 秋季 學術發表論集』, 서울: 書誌學會, 2006. 23-40. 參看.
 ② 朴文烈, “古今名喻」에 관한 研究”. 『古印刷文化』 第13輯.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6. 113-156. 參看.
 ③ 朴文烈, “「古今名喻」의 編次에 관한 研究”. 『人文科學論集』 第35輯. 淸州: 淸州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2007. 5-30. 參看.



<寫眞 3> 土活字本 「古今名諭」⁴⁵⁾

4.5 土活字的 內入

土活字的 內入에 관하여 「承政院日記」에서는

… 聖上께서 “그 [土活字의] 體樣을 살펴보고 싶으니, 鐵[活]字와 土[活]字를 각각 數 3字씩 內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도다!”라고 하시었다.⁴⁶⁾

- 45) ① 吳仕期 編, 古今名諭.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1. 全12卷.
 ② 吳仕期 編, 古今名諭.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2. 全6卷.
 ③ 吳仕期 編, 古今名諭.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3. 全12卷.
 46)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7), 冊38. 216.
 … 上曰 欲觀其體樣 鐵字土字各數三字 入之可也 …

라고 기록하고 있다.

承政院日記의 기록에 의하면 土活字 3字 정도가 內入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확실한 內入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承政院日記」의 기록이 8월 29일 이후로 부분적으로 闕落되어 기록상으로 그 情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厚生錄」의 土活字 製作法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辛仲厚(生沒年 未詳)의 「厚生錄」⁴⁷⁾에 수록된 土活字의 製作法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土鑄字法은 陶土⁴⁸⁾를 精細⁴⁹⁾하게 하여 纈潤⁵⁰⁾한 것에 楡汁⁵¹⁾과 같은 종류의 水分을 섞은 것과 [모두] 함께 넣어 精細⁵²⁾하게 擗아서 빻는다. 이에 앞서 鐵丸⁵³⁾의 筭板⁵⁴⁾과 같이 孔穴⁵⁵⁾이 가지런히 鑿려⁵⁶⁾있고 그 내부는 四面이 方正한 木板을 取得하여 그 내부에 眞油⁵⁷⁾를 바른다. 처음[에 만들었던] 陶土로 穴中⁵⁸⁾을 채워 枋⁵⁹⁾로 매우 堅固하게 다지면 木板의 背面으로는 곧 陶土⁶⁰⁾가 한결같이 벗겨져 나오는데, 그 형태는 마치 雙陸⁶¹⁾의 骰子⁶²⁾와 같다.

- 47) 金然昌 所藏本은 서명이 東國厚生(新)錄, 이나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은 「厚生錄」이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은 金然昌 所藏本에 비해 上卷이 없을 뿐 전체적인 내용은 大同小異한 것으로 파악된다.
- 48) 陶土: 질그릇을 만드는 찰흙으로 붉은색의 진흙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 뼈가 없으면 주저앉듯이 찰흙은 뼈 같은 성분이 부족하여 1,200도가 넘으면 주저앉는다.
- 49) 精細: 잘고 곱게 잘 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50) 纈潤: 잘 섞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51) 楡汁: 느릅나무의 즙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는 塗料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 52) 精細: 잘고 곱게 잘 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53) 鐵丸: 쇠로 만든 구슬모양의 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쇠로 만든 주판알을 의미하는 것이다.
- 54) 筭算(板算): 籌板, 數板, 算盤이라고도 한다.
- 55) 孔穴: 구멍을 의미하는 것이다.
- 56) 烈鑿: 가지런히 鑿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烈은 列의 오식인 듯하다.
- 57) 眞油: 참기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芝麻油(脂麻油), 香油, 胡麻油라고도 한다.
- 58) 穴中: 孔穴의 내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 59) 枋: 枋 또는 달구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烈日⁶³⁾ 속에 두었다가 乾燥가 되면 唐紙에 「洪武正韻」의 字體를 써서 그 위에 뒤집어(覆·覆) [붙여]서 陽刻으로 刻한 후, 白蠟을 두껍게 말라 불 속에서 구워내면 개개가 精好⁶⁴⁾해진다. 統制使 李載恒이 黃州의 兵營에서 [從事하였을 적에] 磁器土⁶⁵⁾와 같은 陶土를 求得했는데 극히 精好하였다. 여타 지역의 任所⁶⁶⁾에서는 土鑄字를 製作하는데 無用하고 손수 書寫하여 구워낼 여가가 없었으므로, 將校 李道揆의 집(家)으로 가지고 가서 부탁하였다고 한다.⁶⁷⁾

辛仲厚의 厚生錄 에 수록된 이 기록은 한국의 土活字 製作法에 관한 유일한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6. 結 論

이상에서 서술한 바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 (1) 韓國의 活字印刷術은 고려시대 말기에 金屬活字印刷術이 이미 실용되고 조선시대 초기에 木活字印刷術 이미 실용되었다. 반면에 土活字印刷術은

60) 土: 陶土를 의미하는 것이다.

61) 雙陸(雙六): 주사위를 써서 말이 먼저 궁에 들어가기를 겨루는 놀이이다.

62) 骰子: 정방형의 육면체로 된 장난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사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63) 烈日: 강렬하게 내리쬐는 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64) 精好: 精巧하고 좋음, 뛰어난게 좋음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65) 磁器土: 磁(瓷)器를 만드는 흙인 磁(瓷)土를 의미하는 것으로 陶土와는 다른 흙이다. 磁(瓷)土는 陶土와는 달리 1,200도 이하에서는 익지 않고 대체로 1,300도 이상에서 익는다. 따라서 陶土로는 磁器(瓷器)를 만들 수 없다. 磁(瓷)土는 대개 돌가루로 되어 있다. 磁(瓷)土 중 高靈土를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는 中國 江西省 高靈山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던 때문이다. 흔히 慶尙北道 高靈에서 나는 磁(瓷)土를 高靈土라 여기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66) 所: 任所를 지칭하는 것이다.

67) 辛仲厚 著, 厚生錄 卷下.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1862頃].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

土鑄字法 用陶土 精細瀝潤者 和水如榆計之類 和合精細搗 既熟 先此取木板 烈[列]鑿孔 穴 如鐵丸筭板 而其中四面方正 塗真油於其中 始取陶土 填穴中 甚堅用椎 卽板背則 土皆脫出 形如雙陸骰子 置烈日中 既乾 以洪武正韻體 書於唐紙 覆(覆)其上 以陽刻刻之 厚塗白蠟 炙之火中 箇箇精好 李統制使載恒 在黃州兵營時 得陶土如磁器土而極精好 他地之所 無用作土鑄字 親書炙出未暇 持來付之 將校李道揆家云.

-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실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承政院日記」에서 새로이 확인한 土活字印刷術과 관련된 記錄의 分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2) 膠泥活字·陶活字·오지活字·土鑄字 등의 재료는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한결같이 흙(土)을 主材料로 하여 만든 활자이므로, 土活字는 어떤 종류의 흙이든 흙을 빚어서 제작한 활자의 凡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종래 土活字印刷術 發明의 創案者와 創案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었고 發明의 創案時期는 폭넓게 잡아 18세기 초반일 것으로 推定되어 왔다. 또한 土活字印本으로는 「三略直解」 1冊, 「經史集說」 7冊, 「玉纂」 19권, 「東溟先生集」 등이 전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전래되고 있는 土活字로는 ‘枕’, ‘帚’, ‘禧’ 등의 활자가 전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 (4) 「承政院日記」에서 새로이 확인한 記錄에 의하면 土活字印刷術의 創案者는 權孚(1662-1739)이고 그 創案地는 鑄字洞이며, 「承政院日記」의 기록에 의하면 土活字印刷術의 創案時期는 영조 5년(雍正 7, 己酉, 1729) 以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土活字印本으로는 전존하는 土活字印本 이외에도 최소한 古今名喻 가 土活字로 印出되어 전존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전래되는 土活字도 ‘枕’, ‘帚’, ‘禧’ 등의 토활자 이외에도 ‘臼’과 ‘筴’ 등의 토활자가 전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5) 「承政院日記」에 의하면 土活字印刷術의 效用은 金屬活字에 비하여 物力과 功力이 크게 減省되는 것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土活字 製作方法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辛仲厚의 「厚生錄」에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權禧 編, 薰陶坊鑄字洞志. [鑄字洞]: [刊行者未詳], [光海君 13(1621) 跋].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古貴5409-3)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 金世濂, 東溟集. 影印本. 韓國文集叢刊 95.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2.
- 朴文烈, “古今名喩에 관한 研究.” 古印刷文化 第13輯. 清州: 清州古印刷博物館, 2006. 113-156.
- 朴文烈, “古今名喩의 版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會 秋季 學術發表論集 . 서울: 書誌學會, 2006. 23-40.
- 朴文烈, “古今名喩의 編次에 관한 研究.” 人文科學論集 第35輯. 清州: 清州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2007. 5-30.
-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7. 冊38.
- 辛仲厚 著, 厚生錄 卷下.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1862頃]. 清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
- 沈括, 夢溪筆談. 臺灣: 商務印書館, 民國45(1956). 卷18. ‘技術’條.
- 安東權氏大宗會 編, 「安東權氏大同世譜」. 서울: 해돋이, 2004. 全32卷.
- 吳仕期 編, 古今名喩. 芸閣印書體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2卷4冊.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일산古032-41)
- 吳仕期 編, 古今名喩. 木活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6卷3冊.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한古朝16-34)
- 吳仕期 編, 古今名喩. 木版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2卷6冊.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한古朝93-60)
- 前間恭作, 朝鮮の板本. 福岡: 松浦書店, 昭和12(1937).
- 鮎貝房之進, “支那及朝鮮之古活字.” 書物同好會報 第10號. 京城: 書物同好會, 昭和16(1941). 附錄條.
- 曹之, 中國印刷術的起源.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994.
- 千惠鳳, “陶活字本 [東溟先生集]의 發掘.” 季刊書誌學報 第15號(1995). 8-10.
-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7.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胡應麟, 少室山房筆叢. 石印本. 上海: 掃葉山房, 民國12(1923). 卷4. 經籍會通4.

